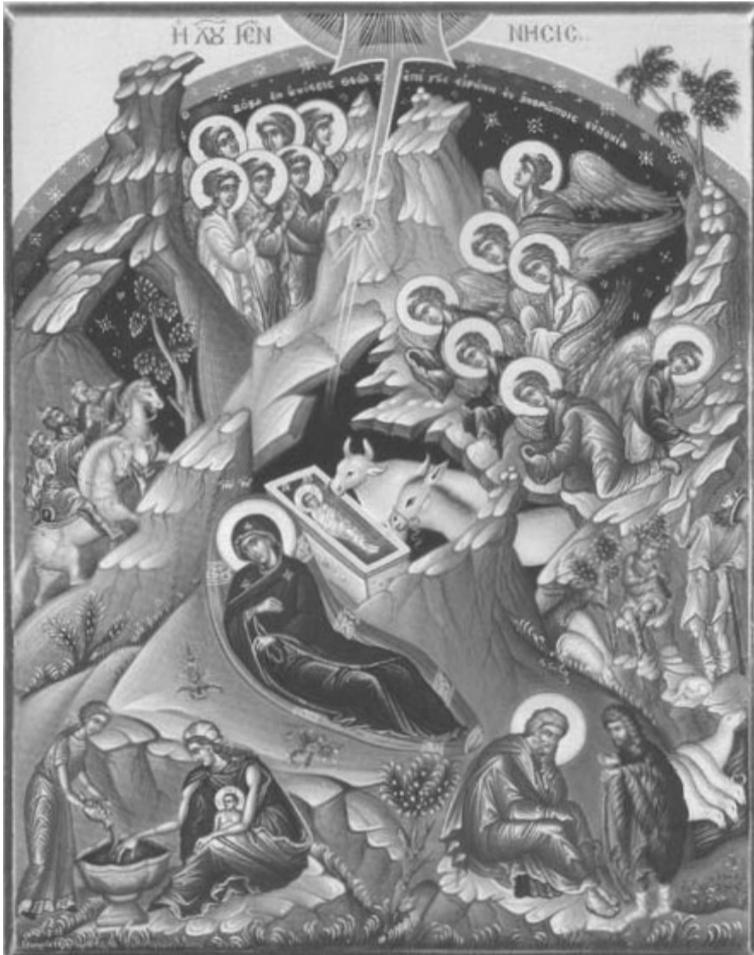




# 정교회 주보



## 성탄 축일 전 주일

아담에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의로운 선조들과 예언자들

성 아리스, 성 아글라이아 순교자

제 1조, 조과복음 4

(조과에서 성탄 카타바시아)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에서

•제 1조 부활 찬양송 / 82, A 211

•주일 입당송 / 14, A 42

•성탄절 전 찬양송 / 208, B 245

•성당 찬양송

•성탄대림절 시기송 / 208, B 239

•사도경: 히브리 11:9-10, 32-40 / 208, 봉독서 640

•복음경: 마태오 1:1-25 / 209, B 246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교회의 기혼 성인들

### 성 아나스타시아 대순교자

성 아나스타시아는 로마 태생입니다. 아버지는 프레텍스타토스로 로마인이고, 어머니는 파브스타였습니다. 아나스타시아는 아름다움과, 학식, 완벽한 도덕성 그리고 지혜로움으로 특출 났습니다.

아나스타시아는 어린 나이에 로마의 총독이고 열렬한 우상숭배자인 포플리오나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웠고, 세례성사를 받았습니다. 남편 때문에 그녀의 세례성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몰래 도움을 주고 위로를 베풀었습니다. 그녀는 남루한 옷을 입으면서 음식과 돈을 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방문하여 그

들에게 도움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약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인 포플리오나스가 아나스타시아의 활동을 알고서는 그녀를 유배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충고로 그녀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나스타시아는 학대를 받을 때도 굳건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인의 이러한 고집은 남편을 화나게 했고 남편은 결국 성인을 투옥시키라고 명령한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에게 그녀를 넘겨주었습니다. 성인은 황제의 고문에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였기에 결국 290년에 순교를 당하며 안식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갔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탄생

오늘 복음서의 내용은, 첫째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족보와 둘째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께서서는 그의 첫 번째 창조물들의 불순종으로 그들을 낙원에서 쫓아 내실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구세주를 그들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 첫 번째 약속은 다음과 같다.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창세기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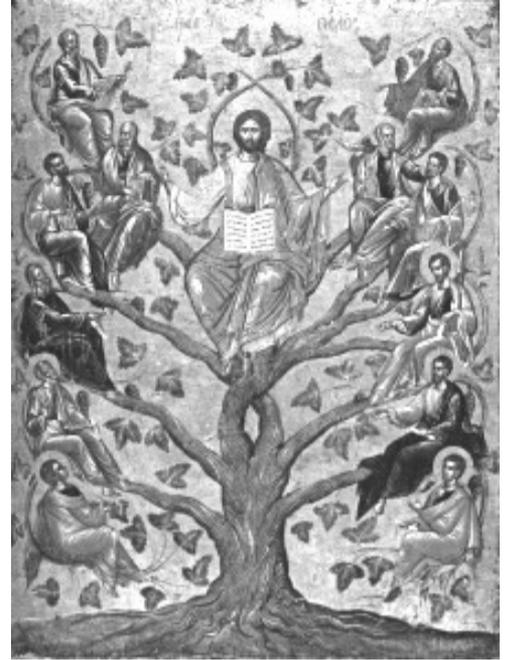
이것은 뱀의 형상 뒤에 숨어 있는 교활한 사탄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씀의 뜻은 이렇다.

“나는 너(사탄)를 여자의 후손(동정녀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

그 이후 하느님께서서는 구약시대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다윗 왕 등 우리의 선조들에게 “그들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같은 약속을 계속해서 하셨다.

마태오 복음사가가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족보를 열거한 것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요셉은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예언자이며 왕이었던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었다. 그들에게서 하느님이 예언하신대로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오래 전에 예언자들은 구세주이신 하느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예언자는 B.C 8세기경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명백하게 예언 하였다.



“그런즉, 주께서 몸소 징조를 보여 주시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이사야 7:14)”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하느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는 영광스럽고 장엄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가난한 한 여인을 통하여 초라하게 오셨다. 하느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흠 없고 정결하신 분을 통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구약에서는 예언자를 통하여 하느님의 존재를 알렸으나 사람들은 하느님의 존재를 직접 보고 싶어 했으므로 신약에서는 그가 직접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모두가 그를 알아보고 반기지는 않았다. 하느님의 영적 친교를 원하는 은총을 입은 자들만이 그를 알아보고 반겼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느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그의 탄생을 기념해야 하겠다.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 그리스도의 재림은 처음 오실 때와 다를 것입니다

## (안토니 M. 코냐리스 신부 †2021년 안식)

구약성경은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를 자세히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자들은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하였습니다. 곧,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동정녀인 어머니 몸에서 나실 것이다.

그분은 이집트로 피난가실 것이다.

그분은 병자를 고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백성에 의해 배척당하실 것이다.

그분은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은전 30년에 팔리실 것이다.

그분은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형을 당하실 것이다.

그분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실 것이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다.

그분은 부활 후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물론이고 신약성경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처음 오셨을 때와 둘째로 오심 (재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곧,

1.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본 사람은 아주 적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그분을 바라보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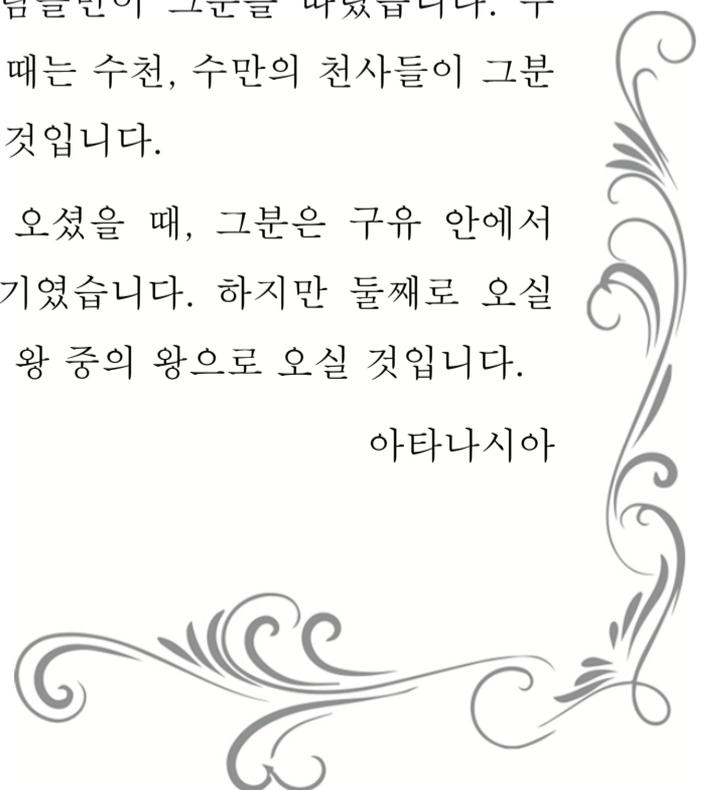
2.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은 멸시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3.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4. 처음 오셨을 때, 겨우 12명의 제자와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그분을 둘러쌀 것입니다.

5.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은 구유 안에서 힘없는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둘째로 오실 때, 그분은 왕 중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타나시아



# 주보 소식

## 대교구

### ■ 성탄절과 신년, 신현축일 예배 일정

2021년 12월 24일(금)

오전 9:00 ~ 10:30 - 성탄절 대시과

오후 5:00 ~ 7:30 - 9시과, 성탄대축일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2021년 12월 25일(토)

오전 8:45 ~ 10:00 - 성탄대축일 조과

오전 10:00 ~ 11:30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찬예배

2021년 12월 31일(금)

오후 5:00 ~ 6:00 - 축일 대만과

2022년 1월 1일(토)

오전 8:45 ~ 10:00 - 축일 조과

오전 10:00 ~ 12:00 -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2022년 1월 5일(수)

오전 9:00 ~ 10:30 - 신현축일 대시과

오후 5:00 ~ 7:30 - 신현축일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2022년 1월 6일(목)

오전 8:45 ~ 10:00 - 신현축일 조과

오전 10:00 ~ 11:30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찬예배

오전 11:30 ~ 12:15 - 신현축일 대성수식

(각 지역성당의 예배시간은 각 지역성당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 ■ 한국정교회 120주년 기념 온라인 전시회

12월 5일에 한국정교회 120주년 기념 온라인 전시회의 개막 행사를 서울 성당에서 가졌고 그 후 국내외 많은 단체와 사람들에게 전시회 주소를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CBS를 비롯한 다수의 뉴스채널에서 우리 전시회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전시회에 대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전시회의 주제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온 세상에 한국정교회 120주년 온라인 전시회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https://www.greekbyzantineexhibition.com>으로 접속하시면 전시회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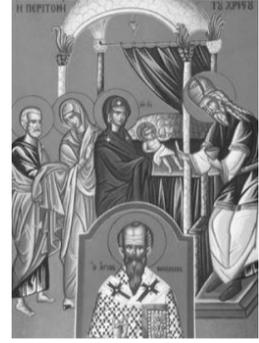
###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동정

지난 12월 12일 주일에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께서는 전주

성모안식 성당에서 주일 성찬예배를 집전하셨습니다. 성찬예배 후 신자들에게 금식과 고백성사를 통해 성탄절 대축일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전하시고, 신자들과 함께 현재 재건축 중인 성당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과정을 살펴보셨습니다. 성당 재건축은 하느님의 도움과 성모님의 중보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신자 분들의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성탄절 대축일을 준비합시다

성탄절 대축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금식과 예배생활을 통해서, 특히 고백성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성탄절 대축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합시다. 신자분들 모두 영적 아버지께 문의하여 일정을 맞추어서 고백성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주간예식

12월 20일(월) 성 이그나티오스 안디오키아 주교순교자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

